

2019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약의 정경 안에서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7

큰 빛과 권위가 있으신 분과 의사와  
신랑과 생배와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성경 말씀: 마 4:16, 8:5-13, 9:9-17

- I. 그리스도는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을 비추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위에 떠오르는 큰 빛이다—마 4:16, 요 1:4-5, 12:36, 엡 5:8, 골 1:12-13, 고후 4:6-7, 행 26:18.
- A.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눅 1:78-79.
  - B.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시 84:11, 86:11.
  - C. 시편 22 편은 “새벽의 암사슴에 맞춘 노래”이다—제목.
  - D.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삿 5:31 하, 사 60:1, 5 상.
  - E.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빌 2:15-16 상.
  - F.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마 13:43 상.
- II. 백부장은 주님께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보았다—마 8:5-13.
- A. 백부장이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라고 말할 때, 그는 주님께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심을 인식했다. 백부장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위가 있었다—마 8:9 상.
    - 1. 이 땅에서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계셨다—요 5:19, 4:34, 17:4, 14:10, 24, 5:30, 7:18.
    - 2.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타고난 인성을 부인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제한 아래 있는 인간 생명을 사셨다.
    - 3. 실지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계심으로써, 그분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셨다—빌 2:8-11.
    - 4. 그분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셨다.
    - 5.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수정같이 두려운 맑은 하늘(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늘의 상황과 분위기와 주님의 다스리시는 임재의 상태로 채워져,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겔 1:22, 26, 계 22:1, 롬 5:17, 21, 히 4:16, 비교 골 1:13.
  - B. 백부장은 주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했다—마 8:9.
    - 1. 주님께 있어서, 그분의 권위는 주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행사된다—마 8:8.
    - 2.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위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주입하신 믿음을 통해 행사된다—마 8:10, 13, 히 12:2.

- C.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다—마 7:28-29, 막 1:22.
  - 1. 자기들 스스로 헛된 지식을 가르치는 자칭 율법학자들은 권위와 능력이 없었다—비교 고후 3:6, 8.
  - 2.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교사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실재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영적 능력을 갖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신성한 다스림 아래 복종시키는 신성한 권위를 갖고 계셨다—사 30:20-21, 마 23:8, 10.

**III. 왕국을 위해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의사로서 사역하셨다—마 9:9-13.**

- A.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 B. 그분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선택을 받거나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다—마 8:2-16, 28-32; 9:2-11, 시 103:1-4, 107:17-22.
- C.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 D.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롬 3:10). 모든 ‘의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다(눅 18:9). 왕이신 구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셨다.
- E. 우리의 의사로서 주님은 주로 우리의 영과 혼 안에서 우리의 영적 질병들을 치료하신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신체가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었다—마 9:10, 13, 잠 4:20-23.
- F.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출 15:22-27.

**IV.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다—마 9:14-15.**

- A. 의사와 신랑은 다 즐거운 사람들이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낮게 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신랑의 친구들이 되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그들을 신부로 삼으실 것이다.
- B.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사로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기쁨을 갖도록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붙잡아야 한다—빌 3:12-13.
- C. 그 영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들로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시기위해 아버지에 의해 보냄 받으셨다—창 24 장, 엠 5:25-27.

**V. 그리스도는 생베 조각과 우리의 새 옷이시다—마 9:16, 눅 5:36.**

- A. ‘생베’라는 단어는 ‘빚질하지 않은’, ‘김을 쪼어 씻지 않은’, ‘끝손질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처리하지 않은’을 의미한다.
- B. 생베는 육체가 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리스도, 곧 처리되지 않고 끝손질되지 않은 생베 조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누가복음 5 장 36 절에 있는 옷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리된’ 우리의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C. 그리스도는 먼저 새 옷을 만들기 위한 생베이셨고, 그 다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덮는 새 옷으로 만들어지셨다—눅 15:22; 갈 3:27, 고전 1:30, 시 45:13-14, 계 19:8, 렘 2:32.
- D. 낡은 옷에 대고 기운 생베 조각은 그 수축하는 힘으로 옷을 당기어 더 찢어지게 한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깎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어

그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자이신 예수님, 곧 그들의 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모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E.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모방하는 것은 타고난 옛 생명에서 산출된 행위인 그들의 ‘낡은 옷’을 ‘당기는 것’이다.
- F. 왕국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서 그들을 덮는 새 옷으로 취한다.

## VI. 그리스도는 새 가족 부대에 놓여진 우리의 새 포도주이다—마 9:17.

- A. ‘새(new)’의 헬라어 단어는 ‘시간상 새로운’, ‘최근의’, ‘새로 소유한’을 의미한다.
  - 1. 새 포도주는 우리를 강화시키고 힘을 주고 매우 기쁘게 하는 기운을 북돋는 힘을 가진, 새롭고 기운을 북돋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삿 9:12-13.
  - 2. 모든 종교들은 낡은 가족 부대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놓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시키는 힘이 그 가족 부대를 터뜨린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넣는 것은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종교 안에 넣는 것이다—마 9:14-15.
  - 3.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그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갈 1:14-16 상.
- B. ‘새(fresh)’의 헬라어 단어는 본성이나 품질이나 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즉 ‘익숙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을 의미한다.
  - 1. 새 가족 부대는 새 포도주, 곧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담는 그릇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교회생활을 상징한다.
  - 2.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 곧 열광하게 하는 내적 생명이시고,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새 가족 부대, 곧 새 포도주를 담는 외적인 그릇이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교회는 포도주이신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담는 새 가족 부대이다.
    - a. 그리스도의 확대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된다.
    - b. 함께 구성된 지체들은 한 몸이고, 이 몸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고 머리의 몸 이시다—고전 12:12, 행 9:5.
    - c.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고전 1:10, 13 상.
    - d.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채워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몸이다. 이것이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 생활인 새 가족 부대이다.
  - 3. 교회 사람들 가운데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족부대가 회복되어 왔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갖는다. 가족 부대인 교회생활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활

고후 4:16—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시 68:19—**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사 50:4—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졸졸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애 3:21-23—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잠 4:18—의인의 길은 돌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고후 3:18—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시 84:5-7—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요 1:16—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사 28:13—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고전 14:31—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 2:46—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